

교토예술대학 교환학생 체험 수기

교환학생 파견 기간 : 2022.09~2023.07.

연극원 극작과 극작전공 박소담

1. 교환학생 선택 계기

저는 교환학생 파견 이전에 1년 간의 휴학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N2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일본어 자격증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코로나도 약화되는 시기였기에 일본으로의 비자 발급이 재개될 거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후의 수강이나 졸업 상황들을 보았을 때, 교환학생을 가려면 지금, 일본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가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선택한 뒤엔 파견교를 골라야 하는데, 제 전공과 비슷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교토예술대학의 문예표현학과,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코스였습니다. 때문에 파견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고, 학교생활과 일본어 공부를 병행하며 파견이 확정되었을 시기에는 N1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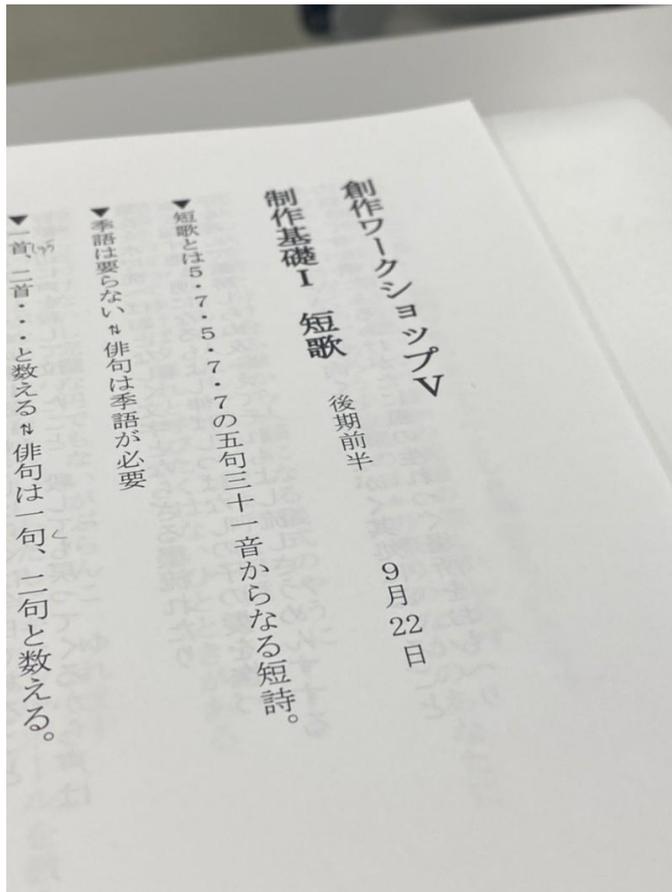
2. 교토예대에서의 생활

교토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은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곳입니다. 디자인, 만화 등이 특히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는 한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는 문예표현학과에는 한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한국인 유학생회가 잘 꾸려져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환학생 생활 후반부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교토예대에 파견된 것은 22년도 9월이었는데, 교토예대는 축제에서 '네부타'라는 전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부타는 일본 북쪽 아오모리 현의 유명한 축제라고 들었는데, 교토예대의 네부타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각각 일본 전통종이를 활용한 전시작을 만들어갑니다.



또, 저는 일본인 학생들과 함께 일본 전통 시조인 단가와 하이쿠를 쓰고 합평하거나, 제미(세미나) 수업에서는 한국의 현 상황이나 저의 견해를 논픽션으로 담아 합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6개월 간 문집을 만들어 나가는 제미의 특성상, 저는 결과물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함께 기사를 쓰고 문집의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일본의 출판계와 편집 스타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예종과 합평스타일이 조금 다른 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제1순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직접 구상하는 것부터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작품 하나의 퀄리티에 집중하는 것에 지쳤다면 교토예대의 작업 스타일에 위안받을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적응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3. 학교 밖

교토는 워낙에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고, 일본인들도 사랑하는 여행지입니다. 특히 단풍이 피는 가을과 벚꽃이 피는 봄에는 버스가 2-30분씩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볼거리가 많아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자주 주변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헤이안 신궁이 보였는데, 그 앞의 오카자키 공원에는 자주 야타이(길거리 좌판 음식)가 열립니다. 한달에 한 번씩 바자회가 열리기도 해서, 근처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9월 말에 이곳에서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교자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토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에 여행을 갔습니다. 오사카는 편도 한시간~한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 안에 왕복이 가능했고, 나고야, 도쿄, 오키나와 등, 웬지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세번 이상 갈 계획이라면 연간패스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간사이 학생들은 '유니바(유티버설 스튜디오의 약자)'에 굉장히 자주 가고, 생각보다 어트랙션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간 패스를 추천합니다.

특히 오키나와 여행이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나하 시내에 앉아서 어느새 오키나와 위홀을 검색해볼 정도로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차가 없으면 불편한 곳이어서 굉장히 많이 걸어야 했지만, 교토에 돌아가서 때때로 과제나 학교 일에 힘들 때 오키나와 여행이 많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4. 주거 및 교통

교토예대는 기숙사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주거는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파견교에서 제공해준 숙소 리스트를 보고 업체를 골라 원룸을 렌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시키킨이나 레이킨 등 일본에서 원룸을 구할 때의 초기 비용과, 가구 등을 살 필요 없이 모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년 파견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파견을 연장하여 총 1년을 교토에 있었지만 중간에 이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같은 집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교토는 분지 지형이라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또 춥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 특성상 이중창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밖보다도 집 안이 더 춥

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머물렀던 23년 1월 말에는 교토에 10년만의 폭설이 내렸는데, 교토는 원래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도시다 보니 폭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도시가 마비되었다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교토는 언제나 낭만이 있는 도시이지만, 이러한 날씨도 고려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역마다 세세한 규칙이 다른데, 그중에서도 교토는 쓰레기를 버리는 법이 세세하기로 유명합니다. 일반쓰레기, 페트병, 병과 캔,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분류가 다양하고 쓰레기 배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배출해야 합니다.

교토는 지하철, 전철보다 버스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본의 교통이 그렇듯 교토 버스도 편도 230엔에 환승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비가 한국에서의 두 배 정도 들었지만, 관광지에 갈 때나 학교에 갈 때 등,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버스는 회수권(5000엔에 버스 티켓 24장 등), 이코카(간사이 지역 교통카드, 교토역에서 구매 이후 편의점에서 충전 가능) 등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저는 실물 이코카를 들고 다녔지만, 제가 교토를 떠날 때 즈음에는 이코카 어플이 생겨서 애플페이가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6개월 파견 동안 학교를 다니고 직접 일본어를 써보면서 느꼈던 것은, 성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했다고 해도 회화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간사이벤(사투리)을 쓸 때는 억양과 단어 중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있어서 곤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새로운 언어로 글을 쓰고 발표하면서 저 스스로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토의 지리도, 사람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팁도 몰랐지만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재밌었기 때문에 연장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사귀게 된 일본인 친구,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1년간의 교토 생활은 아주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일본 교환학생, 특히 교토에의 파견을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